

올해 혼수 트렌드는 자연주의와 실용주의

결혼 특수

청마해 가을 윤달을 피해 3~5월에 결혼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혼수장만에 나선 예비커플들로 인해 유통가가 '결혼 특수'를 맞고 있다. 예식장과 여행사도 특별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6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음력 9월인 올 10월에 윤달이 들며 봄철 결혼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전제품과 예물 등 혼수용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올해의 혼수용품 트렌드는 '자연주의'와 '실용주의'라며 친환경적이고 실용성을 겸비한 제품들이 잘 나간다고 전했다.

인트를 주고 싶어하는 젊은 고객들의 경우 원색 톤의 식기를 많이 구매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봄을 맞이해 라벤더, 핑크, 스카이 블루 등의 파스텔톤의 식기도 인기가 많고, 우드 트레이와 같은 자연주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예비 부부들도 있다. 또한 대량 식기세트로 구매하는 고객보다는 2~3인 실속세트로 소량 구매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침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봄을 맞이해 연두색, 옐로우와 같은 자연주의 컬러와 더불어 심플한 화이트톤의 자수 침구세트 판매가 증가했다.

가전용품의 경우 콤팩트한 디자인의 소형 가전과 대형가전이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머신은 혼수 필수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TV는 고화질의 최대 사이즈를 선호하고 있으며 올해 스포츠의 해를 맞아 50인치대의 TV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

냉장고의 경우 좁은 공간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복합형 제품들을 선호해 스파클링 워터, 정수기, 감치냉장고 기능을 갖춘 멀티기능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있는 만큼 공기청정기도 혼수용품 필수품으로 떠올랐다. 공기청정기 판매가 지난해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어컨은 스탠드형 판매가 증가한 반면 벽걸이형은 소폭 감소 수치를 보여 스탠드형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고 있다.

예물 또한 작년에 이어 고가의 예물 세트보다는 실용적이고 매일 할 수 있는 3부 다이아몬드 커플링 세트 위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계의 경우 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작년보다 전년 대비 10% 이상 높아졌으며, 론진, 헤밀턴, 오리스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가전매장을 찾은 고객이 대형TV 앞에서 직원에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가을 윤달 피하자” 3~5월 물리고 친환경 제품 잘나가

가전제품 선택 활용도 증시... 예물세트 대신 커플링으로

가구 및 주방용품의 경우 전통적인 화려한 스타일에서 탈피해 북유럽 트렌드의 영향을 받은 모던한 스타일이 사랑 받고 있다.

힐링 열풍을 타고 심플한 디자인의 가구가 각광을 받고 있고 식탁 위에 포

소와 구매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일반 가죽소파 판매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1인용 리클라이너 판매는 대폭 늘어나는 등 가구 구매 시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등의 브랜드가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가의 한 관계자는 “혼수용품 구

매 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꼭 필요한 상품에는 비용을 과감히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렴한

가격대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등 가치 소비가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바람막이 점퍼 하나면 꽃샘추위 걱정 끝

새 학기 스타일

제로투세븐의 어린이 아웃도어 브랜드 새르반은 6일 새 학기를 맞은 어린이 스타일링 요령을 소개했다.

새 학기 의상을 고를 때에는 활동량을 고려해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도 확인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거나 불편하면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입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신축성은 좋은지, 속옷은 땀 흡수가 잘 되는지 등 기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학기에는 꽃샘추위나 봄바람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옷이 필요하다. 바람막이 점퍼가 있으면 꽃샘추위에 대비할 수 있다. 겹옷으로 원색의 바람막이 점퍼를 선택했다면 점퍼 안에는 봄 느낌이 나는 캐주얼과 패턴을 접목한 옷을 입어도 좋다.

아우터보다 과감한 색감과 무늬가 들어간 옷을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다. 아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부엉이,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옷을 선택해도 좋다. <연필뉴스



따뜻한 겨울... 우유가 남아돈다

젖소 집유량 늘고 소비는 줄어

분유 1월 재고량 1만t 육박

포근한 겨울 날씨에 젖소의 집유량이 평년보다 늘어나면서 우유가 남아돌고 있다. 집유량에 예년보다 늘어난 시기가 각급 학교의 방학과 맞물리면서 공급은 늘고 소비는 줄어드는 등 수급불균형으로 유가공 업체의 분유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

업계는 대형마트 등 가격 할인 상품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소비 촉진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낙농가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5867t으로 지난해 1월 5575t보다 5.23% 늘었다. 2년전인 2012년의 5415t보다는 8.5% 증가했다.

2월 들어 하루 평균 생산량도 6143t

으로 지난해 2월(5708t)대비 7.6%, 2012년(5639t)보다는 9.4% 많다.

유가공업체가 계약 농가에서 가져온 원유를 제품으로 만들고 남은 부분을 팔려 보관하는 분유재고도 연초에 큰 폭으로 늘었다.

분유재고 규모는 지난해 11월 6158t에서 12월 7328t으로 늘었고, 1월 재고량은 9978t으로 1만에 육박하고 있다. 1월 재고량은 구제역 파동 전인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수급 불균형은 물겨울 기온이 비교적 따뜻했기 때문이다.

젖소가 원유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온도는 10~20도 사이인데, 올해 겨울 기온이 비교적 따뜻했던 탓에 젖소들의 집유량이 평년보다 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이후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이 지속됐고, 지난해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이후

목장주들이 생산량을 늘린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12월 이후 2월까지 방목기간 급식 수요 등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업체들의 원유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졌다.

이런 수급 불균형은 기온상승과 함께 젖소들의 원유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5월까지는 계속 심화할 것이며, 심각하면 '원유 파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한 낙농업계 관계자는 “젖소는 통상 겨울이 지나고 더위가 본격화하는 5월 초까지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다”면서 “수요는 늘지 않는 가운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재고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심하면 원유 파동도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와 유가공업체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격 할인 등 프로모션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연필뉴스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특가기획 권리금없는 프리미엄 입지

일택 010-8248-6001

분할·통합가능

| | |
|----|--|
| 1층 | 의류매장 / 금융기관 / 커피숍 핸드폰매장 / 편의점 / 약국 331.38m ² / 76.42m ² |
| 2층 | 의류매장 / 금융업소 커피숍 / 휴게음식점 593.17m ² (≈179.43평) |
| 3층 | 전문의원 안과·이비인후과 치과·피부성형과 1164.9m ² (≈352.38평) |
| 4층 | 사무실 / 학원 365.58m ² (≈109.58평) 216.87m ² (≈65.16평) 582.45m ² (≈174.74평) |
| 5층 | 아스터리학원 유투엠수학학원 임대확정 |

상무지구 BYC건물 맞은편
전속물건 - 공동중개환영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2014-1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4년 3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현장학습과 함께하는 「실용도종약초」 수강생 모집

교육일시: 2014년 3월 4일(화) ~ (15주) / 매주 화요일 저녁 7:00 ~ 계속 모집중

강사: 김성희 010-9604-5377

교육내용

- 주변에 자생하는 약초에 대한 생애 및 분류의 이해
- 약초의 성질과 유효성분, 지표성분과의 상관 관계
- 약초 발효액, 발효차, 식초만들기
- 약초의 재배, 채취와 가공 방법
- 연대인의 건강과 healing 도움이 되는 약초

광신대학교 생활한방교육원